



시각장애인을 위해
소리로 서대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서대문구 소식을 한 눈에 들여다보는

서대문 마 당

2018 **12** No.509

2018년 11월 26일 발행



힘내세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02

기획특집

힘내세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서대문 뉴스를

신춘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14

서대문 뉴스를

함께 치운 눈으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서대문

24

뚝뚝(Talk Talk), 우리동네

지금 우리 동네는?

26

프로그램

2019년 1분기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靑

“힘내세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靑(푸를청) 年(해년)’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기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푸르른 시절이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청년과 관련한 취업절벽·N포세대 등의 키워드는 밝은 희망보단 좌절과 낙담을 느끼게 한다. 그만큼 주거·일자리에서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신의 푸르른 꿈을 펼쳐 나가는 세대문구 청년 주민과 그들을 위한 공간 운영자와도 이야기를 나눠봤다. 더불어 청년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 칼럼을 통해 살펴해보았다.



연세대학교 학보사 '연세춘추' 기자들
사진 하수민 연세대학교 학보사 기자

연세대 학보사 기자들이 말하는 '고민 이야기'

청년, 고민을 말하다

서대문구에는 여러 대학이 위치해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연세대. 연세대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연세대 학생들의 고민을 듣기 위해 연세대 학보사 '연세춘추' 일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윤현지 연세대학교 학보사 기자
사진 하수민 연세대학교 학보사 기자



“이제 곧 4학년이 되는데 아직 진로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하지 못해 고민이예요. 지금은 기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진로 계획을 최근 바꾸게 되면서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오한결(24) 보도2부기자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작게는 당장 오늘 먹을 편의점 음식의 영양소 불균형을 걱정하는 것부터, 크게는 집 평수와 재력, 학벌까지. 앞으로 살아갈 날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정준기(22) 사회부장



“자취가 힘들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집이 서울에서 너무 멀어서 기숙사 지원을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집에 자주 못가다 보니 엄마 밥이 너무 먹고싶어요. 강아지도 보고싶고요.”
이승정(22) 보도1부기자



“취업. 4학년 1학긴데 따로 준비해둔 게 없어서, 또 대학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공부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서 고민입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듯 싶어서 다음 학기 성지순례 갈 겁니다.”
송경모(23) 편집국장



“이제 학보사 활동이 끝나가서 각종 대외활동을 지원했는데 벌써 오늘 하나 떨어졌어요.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건 연앤데... 전국의 건장한 남자 대학생들이거 보시면 연락주세요!”
김가영(23) 매거진부장



“학보사 기자활동과 학과 공부를 병행하기가 힘들어요. 기사 마감 지키기도 버거운데 당장 다음주에만 조모임이 4개, 제출해야하는 과제가 3개 있어요. 이번 학기 성적이 정말 걱정입니다.”
박건(25) 사진영상부기자



“지금 학내선거 기간이라 학교 사건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요. 빨리 선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지현(22) 보도2부기자



“여행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겨울방학 때 어디 갈까 고민 중인데 돈이 없어서 매일 김밥만 먹어요. 돈 아껴서 여행가려고.”
서민경(21) 보도2부기자

이화52번가
청년몰 조성 이후
달라진 것들



이화52번가, 그림자 진 공간을 밝히다

글 윤현지 연세대학교 학보사 기자
사진 하수민 연세대학교 학보사 기자

이화여대와 신촌기차역 사이에는 익숙하고 친근한 골목길 하나가 있다. 이화쉼터부터 각종 청년창업 카페 등 좁지만 꽉 찬 '이화52번가'다. 지금은 유명 카페, 맛집들로 가득한 골목이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좁다란 골목길은 어둡고 음침했다. 문을 닫은 가게들이 즐비했고 밤이 되면 골목을 지나는 학생들이 무섭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이에 구청과 이화여대 측은 손을 잡았다. 이름하야 이화52번가 청년몰 조성 사업. 청년들과 이화여대는 산학협력

에 따른 창업 기회를 백번 활용해 골목을 채웠고 서대문구청은 대학, 지역 상권과 협업해 침침했던 골목길을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2015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 임대료 안정화 협약,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등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가 모두가 아는 지금의 이화 52번가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 말엔 동감하는 바다. 몇 개의 창업 점포는 결국 골목을 떠나게 됐고 그에 따른 공백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땅이, 입소문의 가운데로 옮겨가는 것은 확실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지금, 어두침침했던 골목 바닥에는 밝은 꽃이 피었고 쉼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오이길'과 SNS 속 포스팅들. 완벽하지는 않아도 밝아진 분위기와 활발해진 논의에, 그림자졌던 땅은 분명 밝아졌다고 말하고 싶다.

이파로 (E·Fa·Ro),
패션문화거리 이야기

각양각색 디자이너들의 창업 스토리

이화여대 5길은 독특한 분위기의 가게가 정말 많다.

일명 '이파로(E·Fa·Ro)'라 불리는 이 골목은

특특 튀는 개인스타트업 브랜드가 밀집돼있는 공간이다.

개성 강한 가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글 윤현지 연세대학교 학보사 기자

사진 하수민 연세대학교 학보사 기자

J CHOI · 최정수 씨

“미국에서 패션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 여기 자리를 잡았죠.”

이파로 쇼룸을 제공받아 개인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최정수 씨는 최근 서울패션위크를 방문할 만큼 활발하게 활동 중인 스타트업 디자이너다. 모두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패션을 위해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 중인 최정수 씨의 앞날을 응원한다.

A Romantic · 송헌델 씨

“큐레이터를 했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정부지원 사업에 지원했는데 됐더라고요.”

알폰스 무하에게서 영감을 받아 그의 작업을 입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만든 브랜드 A Romantic. 송헌델 씨는 패션이나 문화



3

- 1.J CHOI, 최정수 씨
- 2.A Romantic, 송헌델 씨
- 3.AHHORN, 김혜인 씨
- 4.Dalring 4 U, 김신영 씨



4

콘텐츠를 지원하는 이파로 사업이 좋은 기회라 생각해 이에 지원했다고 한다. 송헌델 씨는 스타트업 디자이너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점을 넘어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앞으로 이파로 사업이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Dalring 4 U · 김신영 씨

김신영 씨 역시 패션 관련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흔치않다보니 이파로 사업에 지원했다고 한다. 김신영 씨가 꼽은 이파로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1년간 관리비만 내고 임대료는 무료로 쇼룸을 낼 수 있다는 것. 기술 기반형 글로벌 액세서리 브랜드를 만들고자하는 것이 목표인 김신영 씨에게는 외국인이 많이 지나는 이파로가 디자인을 검증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한다.

AHHORN · 김혜인 씨

“학생 때부터 저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서른 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 브랜드를 만들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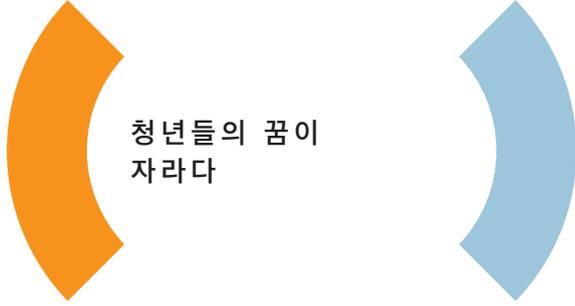
김혜인 씨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신과 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나의 정신, 영혼'이라는 뜻의 AHHORN을 만들었다. 김혜인 씨는 이파로에 자신과 비슷한 청년 디자이너들이 많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개인 브랜드다 보니 혼자 일을 하는 경우가 잦고 고민이 생겨도 토로할 데가 없었는데 같은 일을 하는 이들이 많아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께 기획하는 행사나 공동 작업실을 통해 시너지를 얻고 있다는 김혜인씨가 많은 이들과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



2



청년들의 꿈이
자라다



꿈꾸는 반지하



미플

서대문의 청춘과 동행하다

청년들은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꿈도 많다. 주머니가 가볍고 세상이 버거워 서러울 뿐.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이 시대 청년들과 고민을 나누고 함께 걸어 줄 분들, 어디 없나요? 울상을 지으려던 바로 그때, 서대문의 청춘과 동행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있다. '꿈꾸는 반지하'와 '미플', '청년창업꿈터'와 '무중력시대 홍제'가 바로 그곳이다.

글·사진 강진우 자유기고가

아늑함 가득한 청년들의 아지트 '꿈꾸는 반지하'

난방, 식빵, 다방처럼 톡톡 튀는 이름의 2인용 스터디룸에서는 청년들이 저마다의 꿈을 향해 달려 나간다. 한편에 마련된 다락방에서는 잠시 침표를 택한 청춘들이 가벼운 티타임을 가지며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눈다.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과 세미나룸도 빠짐없이 마련돼 있다.

'꿈꾸는 반지하'는 작년 10월, 서울시 서대문구 일자리카페로 선정됐다. 꿈반지의 주인장인 권오명 대표는 자신 또한 솔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스물아홉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문을 연 이래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꿈반지. 언제든 기꺼이 청년들을 맞이하겠다는 권 대표와 꿈반지의 약속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권오명 대표 /

여전히 먹고살기 바쁘지만 일자리카페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다른 스터디카페와 비교하면 공간이 협소해서 스터디룸 대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나 강의 쪽에도 신경 쓸 생각입니다.

신촌 스터디카페계의 터줏대감 '미플'

서울을 무대로 활동하는 청년이라면 한 번쯤은 신촌 미플에 가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곳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자리를 지키며 청년들을 맞이하고 있는 '스터디카페계의 터줏대감'이다. 현재 미플의 총괄 운영을 맡고 있는 박영수 매니저는 미플이 서대문 청년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다. 취업 강의 외에도 일자리포털을 통한 스터디룸 대관, 매주 수요일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일대일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플은 여기에 더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렇듯 서대문 청년들의 동반자 역할을 다하고 있기에, 박 매니저는 미플을 '또 다른 청춘'이라 정의한다.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한마디다.



/ 박영수 매니저 /

지난해 10월 일자리카페로 선정된 이후, 미플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과 특강을 마련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취업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매달 6개의 강의를 기획하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꿈터



청년창업꿈터 내부



무중력시대 홍제



무중력시대 홍제

창업과 성장의 강력한 연결고리 ‘청년창업꿈터’

서대문구에는 업무 공간과 사무기기는 물론, 개별 주거 공간까지 갖춘 창업지원기관이 있다. 작년 11월 개관한 청년창업꿈터가 바로 그곳이다. 신촌의 오래된 숙박업소를 서울시에서 매입, 리모델링해 태어난 이곳에는 현재 8개 스타트업이 있다. 이상학 센터장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투자 유치 프로그램과 언론을 통한 기업 홍보 마케팅이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쉽게 채울 수 없었던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높다는 것이 이 센터장의 설명이다. 요즘 청년창업꿈터는 입주 스타트업들 간 교류의 폭을 한층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스타트업 하나하나의 역량이 기존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이를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이상학 센터장 /

오랜 기간 스타트업 투자를 업으로 삼아 온 만큼 주거와 입주를 동시에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청년창업꿈터에서는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청년들의 꿈이 더 크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중력을 벗어던지고, 더 넓은 우주로! ‘무중력시대 홍제’

세상이 청년들에게 부여하는 역할과 책임이라는 이름의 중력은, 때때로 삶의 무게 이상으로 무겁고도 버겁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를 완전히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기 십상. 결국 이곳에 머무르는 동시에 탈출할 수 있는, 오로지 청년들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다. 김우희 기획팀장은 무중력시대 홍제가 바로 이런 곳이라고 말한다.

무중력시대 홍제 내부는 개인 작업·회의·스터디·모임 등 어떤 용도로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뭉치할수있달’과 소규모 세미나·회의·강연을 위한 공간인 ‘공부행성남주나’, 강연·포럼·네트워킹파티 등을 즐길 수 있는 메인 홀 ‘여기모두오로라’, 간단한 주방 기구와 휴식 시설을 갖춘 ‘함께배해가지구’와 ‘나지금 실타양’으로 나뉜다. 청년이라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 김우희 팀장 /

서대문 청년들을 제한 없이 한자리에 모으는 ‘서대문 청년 원탁회의’를 개최해 자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더불어 강연, 워크숍 행사인 청년 도담도담 클래스를 통해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내용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하고 싶은 일과 잘 할 수 있는 일!



INTERVIEW

이은지 총괄매니저(서대문구 청년문화활동가)

서대문구 청년문화활동가? ● 시각, 공연, 기획적으로
공기관에 속하지 않고 각자의 작업 활동을 하던 청년예술가들
이 '서대문 예술마을 추진단'을 꾸려서 함께 모여 활동하게 되
었어요. 단순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청년예술가들이 모
였으니 우리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
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
었어요.

보람된 점 ● 한 프로젝트를 위해 한 달 이상 기획을 하
기도 해요. 공을 들인 만큼 실제 포장을 벗기고 선보일 때 주민
분들이 즐겁게 호응해 주시면 늘 보람돼요.

어려웠던 점 ● 서대문 예술마을 추진단은 다양한 분야
의 예술가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에요. 그런 만큼 각자의 니
즈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 공무원
과 예술가분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의 괴리가 있는 청년들에게
● 대학시절 품물패와 강연기획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문
화 기획에 많은 관심이 가졌고 흥미를 느꼈어요. 본격적인 시
작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축제코디네이터 일이었어요. 그
곳에서 좋은 멘토 선생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죠. 덕분에 제
가 하고 싶은 꿈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을 많이 들



"지역 주민들이 친근하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을 수 있었어요. 좋은 멘토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행운이자 내
꿈에 다가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2018년을 보내면서 ● 사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면
서 큰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관에 있어서 돈이 중요한지, 성취감이 중요한지 '스스로
가 지금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
해요. 지금 저의 저울은 성취감에 더 기울어져 있어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청년문화활동가의 임기가 1년
밖에 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점은 많이 아쉬워요. 조
금 더 중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일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꿈과 계획 ● 비슷한 분야에서 저의 역량을 활
용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장기적으로는 다른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기획이나 전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안문
화공간을 운영하고 싶어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뭐야?



INTERVIEW

김미영 대표(신촌 박스퀘어 입점한 청년 창업자)

창업을 하게 된 계기 ● 외식조리학과를 전공한 만큼, 외식 창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창업 관련 많은 정보를 수집하다가 신촌 박스퀘어에서 청년 창업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정보를 접했고 다행히 운이 좋게도 이곳이 저의 첫 일터가 되었어요.

좋은 점 ● 무엇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 가게를 처음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드려요. 가스배관, 싱크대, 몇 가지 기물을 지원받기도 했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서 즐거워요.

아쉬운 점 ● 신촌박스퀘어 구조가 개별로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날씨에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비가 오거나 추운날에는 화창할 때보다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의 수가 조금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곧 외풍을 막을 수 있도록 일부 셔터문과 난로도 설치해준다고 하니 기다려보려구요.

보람된 점 ● “맛있어서 또 왔어요!”, “근래 먹었던 음식들 중에 제일 맛있어요” 고객으로부터 들은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에요. 가장 뿌듯한 순간이죠.

힘든 점 ● 외식창업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메뉴 선정부터 계속 개발해나가는 과정이 힘들었어요. 혼자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서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것보다 실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보를 찾아 보면 나와 같은 꿈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 분들과 이야기 하면서 얻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앞으로의 꿈과 계획 ● 우선 저의 첫 가게를 잘 운영하고 싶어요. 장기적으로는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한국형 서브웨이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지금이 행복해요”



청년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다

청년을 향해 내리는 비, 함께 피할 방법은 없는가



문수훈(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

전례 없는 취업난과 경제 위기

전례 없는 실업률과 경제 위기가 몰아치고 있다. 연일 갱신을 거듭하는 악화일로 수치를 언급하는 게 무색할 정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에 대한 사회적 불안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모두 경질되는 경제 사령탑 교체로까지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청년(15~29세) 실업률은 9.4%로 3분기만 보면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10.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부족과 미스매치 문제점

청년들은 전례 없는 취업난에 처해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산업기술인력 수급통계'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인력이 3년 내내 3만 6천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들은 대기업과 비교해 임금 격차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의 취업을 주저하고 있다. 대기업은 인력 채용을 최소한으로 하고 재투자보다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군다나 발달된 기술로 일자리 전망은 더욱이 어두워질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직업종사자 70.6%가 인공지능·로봇으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년 정책 확산은 파란불, 일자리 중심 정책은 노란불, 표준화는 빨간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은 전례 없는 일자리예산 지출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이 단기 일자리 위주거나 청년들의 취업 시장 진입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청년 활동 지원 등으로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체험형 인턴제나 서울시의 청년 뉴딜 일

자리 등은 일자리의 안정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직무체험과 청년의 취업 시장 진입을 늦추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가깝다.

그동안 전무했던 청년 정책을 사실상 선도해왔던 서울시조차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모습이다.

청년 취업에서 청년자립으로

청년 문제 해결을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이 취업하더라도 결혼과 출산, 주거의 문제 등 또 다른 청년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청년 취업은 사회와 공동체의 주축이 되어야 할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청년자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세우고 기존의 관성에 도전하는 다양한 청년자립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 기성세대가 정해둔 청년의 청사진을 접어두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버넌스 구조의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결국, 핵심은 청년들에게 내리는 비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을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야 한다.

66
청년 문제 해결을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방식을 넘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관성에 도전하는
다양한 청년자립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

99

청년, 독립을 위한 요구와 조건



문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뉴노멀 시대를 사는 청년들

지난 9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2018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는 '좋은 삶'이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무중력시대 양천은 프로젝트 팀을 이루어 비엔날레 작가로 참여하고 있다. 청년의 좋은 삶을 탐구해보고자 작품 제목을 '청년 독립의 재구성'이라 지었다. 작품을 출품함과 동시에 우리는 전시 기간 동안 '뉴노멀 시대에 청년들이 추구하는 독립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게릴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게릴라 토론회에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것은 ○○이다> 라는 질문과,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 각자의 답을 나누어 보았다. 토론회에 참여자들은 첫 번째 질문에 '돈', '시간', '사랑하는 사람', '관계', '얇은 귀', '책임감' 같은 것들을 적어 내려갔다. 그중에서도 '돈'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 질문에는 어떤 답을 했을까.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적어주었던 답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두 번째 질문에도 당연히 '돈'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참여자들이 적어준 답은 '용기', '진실한 마음', '응원', '귀마개', '시간' 이었다. 그중에서도 '용기'라는 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가로막는 것들은 물질적인 것들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필요한 것은 어쩌면 물질적인 것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삶'이란

청년들은 88만 원 세대 또는 3포, 5포를 넘어 N포세대로 규정된다.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생애주기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선택하지 않음'이 아니라 '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의 시각에서 보면 이 문제는 다르게 와 닿을 수 있다.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삶이 청년에게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학에 갔는데, 취업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낳았는데, 나의 삶이 '좋은 삶'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기성세대는 없을까?

지금까지의 청년 정책은 '수당 얼마 줄게 취업해', '집 몇 호 줄테니 결혼하고 아이 낳아'라는 관점과 비슷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삶이 아닌 듯하여 선택하지 않았을 뿐인데, 정책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은 청년들을 가엾게 여기고 지원을 하는 것만 같다.

청년이 독립하기 위해서, 누군가 정해놓은 대입,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경로에서 벗어나 나의 삶의 질서를 세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반이 필요하다. 청년 정책이 청년을 불쌍히 여기고 수혜대상으로 보기보다, 폭넓은 사회적 기반의 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장되길 소망한다.

66
청년이 독립하기 위해서
누군가 정해놓은 대입,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경로에서 벗어나 나의
삶의 질서를 세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반이 필요하다.

99



서대문구에서 겨울나기

#1. 겨울을 즐겁게!

신촌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12.22.(토) ~ 12.25.(화), 신촌 연세로 일대

신촌 연세로에서 제6회 신촌 크리스마스 거리축제가 열린다. 축제는 산타마켓,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가 있는 루돌프놀이터, 연인·가족·친구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타로마을, 콘서트, 거리공연을 즐길 수 있는 눈꽃 광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11월 3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설치되는 경관조명은 축제 기간을 비롯 3개월 동안 연세로와 명물거리를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점등식 : 11. 30.(금) 19시, 연세로 명물쉼터)

☎ 문화체육과 330-1410 📖 블로그 <http://blog.naver.com/xmasfest>



크리스마스 포토존 & 이벤트

명물쉼터를 비롯, 연세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포토존에서 인생샷을 찍고, 즉석사진인쇄 등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여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눈꽃광장

크리스마스 콘서트 & 문화공연

인기 뮤지션과 인디밴드, 비보이, 버스킹 등 다채로운 무대를 스타광장 일대에서 만날 수 있다.

- 크리스마스 콘서트 : 12. 22.(토) ~ 24.(월) 19:00
 ※ 12. 22.(토) 개막식 출연진 : 에디킴, 바바(걸그룹) 등



컬처 브릿지 프로젝트 '2018 신춘기차역 산타런'

도심 속 기부 이색런(Run) 페스티벌



신춘기차역 광장에서 '컬처 브릿지 프로젝트'의 세 번째 행사인 '2018 신춘기차역 산타런'이 12월 8일 개최된다. 산타런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신춘기차역에서 산타복장을 입고 함께 달리는 이색 마라톤 행사로,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산타복장으로 달리는 이색 마라톤과 다양한 공연 등을 통해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즐겨보자.

일시 12. 8.(토)

장소 신춘 기차역 광장 일대

내용

- 연세로의 젊은 에너지와 이대 상권을 잇는 문화 확산 프로젝트
-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산타 복장으로 달리는 이색 마라톤 '산타런'
- 추위를 잊게할 흥겨운 크리스마스 공연
- 산타 퍼포먼스를 마음껏 뽐내는 자리 '산타 패션 콘테스트'
- 사회적 기업 및 핸드메이드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산타마켓'
- 크리스마스와 기부 문화를 접목한 아름다운 조형물

☎ 문화체육과 330-1809



산타마켓

선물가게 & 아트마켓

이벤트 참여는 물론 가족, 친구에게 전할 선물을 구입할 수 있는 산타마켓이 열린다. 고르는 재미가 있는 선물가게와 아트마켓에서 감사의 선물을 준비해 보자.



루돌프놀이터, 타로마을

타로마을 & 그림공작소 & 크리스마스 사진관

타로점을 볼 수 있는 타로마을과 캐리커처, 산타사진관,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루돌프놀이터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자.



#1. 겨울을 안전하게!

함께 치운 눈으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서대문



눈, 이렇게 치워주세요!



집 앞에 내린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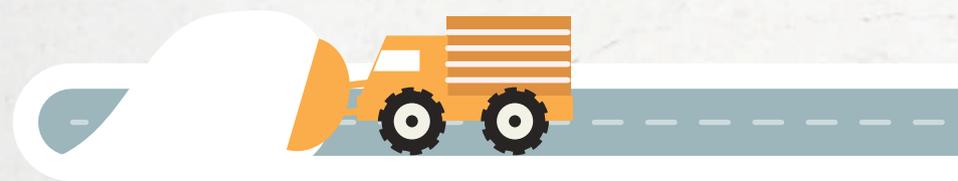


상가 건물 앞에 내린 눈



보도 위에 내린 눈

※ 눈 치우는 시간 :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주간),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야간)
(단, 눈이 10cm 이상 오는 날은 24시간 이내)



안전한 겨울나기

- 노후가옥은 미리 안전점검 하기
- 집·점포 앞 도로, 지붕 위의 눈 치우기
- 주변 빙판길에 모래나 제설제 뿌리기
- 운동화 등 바닥이 넓은 신발을 신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 안전장비(스노우체인)를 미리 준비하고 서행운전

눈, 치울 때 무료 제설함 이용하세요!

빗자루, 삽, 제설제, 모래 등 제설도구를 넣어두는 제설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 안전누리’ 사이트에서 제설함 위치확인)



#3. 겨울 마음을 따뜻하게!

2019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2019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란?

매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위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겨울철 이웃돕기 사업이다.

기간 11. 20.(화)~2019. 2. 19.(화)

참여 따뜻한 겨울나기 접수창구에 성금·품 기탁
※ 기부금영수증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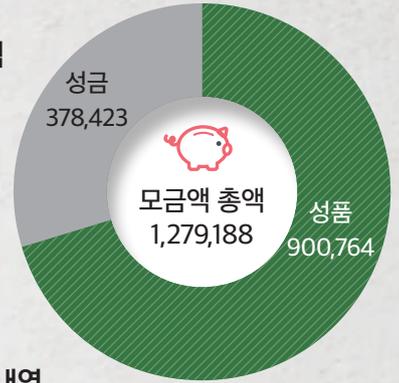
접수 복지정책과(330-8634) 및 각 동주민센터

지난해 모인 소중한 성금·품은 어떻게 쓰였을까?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및 지원액

(2017.11.20.~2018.2.19.)

※ 성품은 수령과 동시에 배분, 성금 잔액은 다음해 이월 지원



2018년 성금 세부 지원내역

저소득주민지원사업(2018.10월 기준)

유형	지원기준	세대수	금액(천원)
체납지원비	-저소득가정 중 공공요금 3개월 이상 체납가구 지원 -임대아파트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가구 지원	85	18,814
의료비	-입원에 따른 각종 수술, 검사, 치료 등 의료비 지원	78	51,128
이사지원비	-저소득 계층 관내 이사 시 이사비 지원	81	23,333
합계		244	93,275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특수사업

유형	지원기준
저소득 청소년 교복비 지원사업	37,25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 공모사업(7개 사업)	70,000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행복드림하우스'	50,000
저소득가정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10,000
저소득 아동·청소년 공부방 지원사업 'THE 좋은 공부방'	21,000
합계	188,250

100가정 보듬기 사업에 새로운 후원자가 함께하다



서울외국인학교(연희동)에 재직 중인 3명의 선생님이 100가정 보듬기 사업의 새로운 후원자가 되었다. 한 후원자는 “자녀에게 나눔을 가르치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 단순히 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연자 가정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또 다른 후원자인 수도암 원장님은 결연자에게 쌀과 옷 꾸러미를 기부하였다. 다시 한 번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후원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복지정책과 330-8758

2018 행복타임머신 사업 은빛 청춘, 과거와 현재를 추억으로 묶다

“여보, 오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해주어 고마워요.”



혼인 50주년을 맞이한 7쌍의 어르신 커플이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곱게 차려입고 수줍은 미소를 띄며 금혼식을 올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행복타임머신’



‘행복타임머신’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금혼식을 올리고, 자서전을 쓰고, 옛 사진을 추억의 액자에 담으며 지난 추억을 되새겨보았다.

“어르신, 밝게 웃어보세요.
멋진 캐리커처를 그려드릴게요.”



‘행복타임머신’은 이화여대, 경기대, 명지전문대, 한국예술원, 한국예술실용학교 등 지역사회 의 여러 자원봉사자의 재능 기부를 통해 더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대문구 어르신 모두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어르신의 추억과 현재를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남기기 위한 ‘행복타임머신’ 사업은, 더 많은 어르신들의 추억을 만나기 위해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구민의 아름다운 효심을 지원합니다

만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가정에 연 20만 원 지급

연세 지긋한 노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것이 현실이다. 서대문구는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효(孝)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 100세 이상 부모 등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정이다. 대상자는 매년 9월 전수조사(서류 및 현장 실지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2019년부터 매년 10월 20만 원(연 1회)이 지급된다. ☎ 어르신복지과 330-1502

행사 문화

2018 찾아가는 문화나눔 - 보물섬을 찾아서

일시 12. 2.(일) 14:00, 16:00
장소 구청 6층 대강당
내용 어린이 참여 놀이극
 (클래식+복화술+그림자극+참여놀이)
신청 11. 20.(화)부터 선착순 전화 접수(무료)
문의 문화체육과 330-1410

2018 서대문 협치성과공유파티 개최

대상 일반주민 및 협치사업자 150여명
일시 12. 6.(목) 14:00~17:00
장소 구청 6층 대강당
내용 협치 우수사례 발표, 협치공로상 표창,
 최고의 협치사업 선정
신청 12. 4.(화)까지 온라인 신청(<http://bit.ly/서대문협치>)
문의 기획예산과 3140-8032

제6회 서대문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일시 12. 11.(화) 19:30
장소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대극장
내용 서대문구립소년소녀합창단 및 특별 출연자 합창 공연
출연 하늘 그림 합창단(지휘자 조대성·바이올리니스트 이해솔)
신청 당일 선착순 무료 입장(별도 신청 없음)
문의 문화체육과 330-1410

크리스마스 벽난로 만들기

차시	장소	일시	대상/인원	내용
1	연희동 아이누리작은 도서관	12. 6.(목) 16:00~17:00	초등학생 1~2학년(8명)	12월 작은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 주제 (겨울/크리스마스)와 연계한 크리스마스 벽난로 만들기
2	홍제1동 새싹작은 도서관	12. 13.(목) 16:00~17:00		

문의 360-8627

신촌문화발전소 12월 공연

대학실내악페스티벌

일시 12. 1.(토), 12. 8.(토) 17:00 / 18:00
예매 네이버 예약(무료, 초등학생 이상)
내용 17:00 건국대학교 / 18:00 국민대학교

신촌재즈살롱라이브

일시 12. 7.(금), 12. 21.(금) 19:30
예매 인터파크티켓(2만원, 초등학생 이상)
내용 양왕렬재즈콰르텟(7일), 뮤지스(21일)

선셋인디스테이지

일시 12. 5.(수), 12. 19.(수) 19:30
예매 인터파크티켓(2만원, 초등학생 이상)
내용 ·12. 5.(수) <너와 나의 이야기> 감성주의 X 박한얼
 ·12. 19.(수) <굿바이 헬로우> 이예린 X 제이화

극단 오징어 <스페셜 딜리버리>

일시 12. 13.(목)~12. 15.(토)
 19:30(평일), 15:00/19:00(토)
예매 인터파크티켓(2만원, 초등학생 이상)

장소 신촌문화발전소 소극장

할인 30세 이하 50%, 예술인 50%, 65세이상 50% 할인

문의 신촌문화발전소(문화체육과) 330-8898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2018 송년음악회

대상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이용 어르신
일시 12. 14.(금) 14:00~16:00
장소 서대문구보건소별관 우리들 2층 대강당
신청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379-0183

INFORMATION

행정 정보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대상 12.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기간 12. 16.(일) ~ 12. 31.(월)
납부 금융기관, 서울시ETAX, 인터넷뱅킹,
스마트폰(STAX), ARS(1599-3900)
문의 세무2과 330-1351

금연구역 지정 안내

일시 12. 31.부터
내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 경계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문의 지역건강과 330-8591

정화조 내부 청소 및 악취저감장치
의무 설치 안내

내용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 시행 의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펌핑형) 부패식 정화조는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제거시설 의무 설치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 위반 시 개선명령 후 미이행시 고발조치
문의 청소행정과 330-1508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

대상 서울에 사업장이 위치한 사업자 누구나
(소상공인 등 모든 사업자 가능)
신청 제로페이 홈페이지(www.seoulpay.or.kr),
구청 일자리경제과, 동 주민센터 등
혜택 ·소상공인 가맹점 : 수수료 0%(매출액 8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은 수준
문의 일자리경제과 330-8401

교육 건강

2019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입시설명회

대상 관내 수험생 및 학부모 300명
일시 12. 18.(화) 19:00~21:00
장소 구청 6층 대강당
내용 2019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지원전략
신청 11. 28.(수)~12. 14.(금)
서대문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문의 교육지원과 330-8277

2019년 서대문구 대학생 멘토링사업 참여
멘티(청소년) 모집

대상 11월 현재 초6~중3
내용 관내 대학 및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멘토(대학생)-멘티(청소년)
1:1 매칭 후 영어, 수학 교과 학습 멘토링 진행(3~12월)
신청 12. 1.(토)~12. 15.(토)
서대문구 평생학습센터 온라인 접수
면접 12. 19.(수)~12. 28.(금)
※ 면접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 의사가 없는 등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 교육지원과 330-1548

아기를 낳은 모든 가정에 간호사가 찾아갑니다

대상 관내 임산부 및 출산 4주 이내 가정
내용

보편방문 출산 후 4주 이내 1회 방문	▶ 산모 건강 : 영양, 산후우울, 스트레스 등
지속방문 임신 20주~만 2세 까지 25회 방문	▶ 신생아 건강 : 신체 발달, 영양, 피부관리 등 ▶ 양육역량 강화 : 모유 수유, 달래기, 재우기 등

신청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 모자보건실 330-1830, 8678, 1785, 8698

생명숲 기억키움학교 이용자 모집

- 대상** 치매진단을 받은 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등급 및 등급 외 판정자 혹은 등급 미신청자
- 일시** 12월(주중) 09:00~18:00
- 장소** 보건소별관 우리들 3층 생명숲 기억키움학교
- 내용** 낮 시간 동안 경증치매어르신 보호 및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신청 및 문의**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379-0183

겨울방학, 우리아이 치아함을 메워주세요

- 대상** 관내 6~13세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아동 중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어금니 홈 메우기(1인 최대 4개)
- 일시** 연중(예약 필수)
- 장소** 보건소 4층 구강보건센터
- 비용** 무료
- 문의** 의약과 330-1846

온가족 토요구강교실

- 대상** 가좌 지역 내 2인 이상 가족
- 일시** 12. 8.(토) 10:00 ~ 12:00
- 장소** 가좌보건지소 구강보건실
- 내용** 구강보건교육 및 생활용품 만들기
- 신청 및 문의** 가좌보건지소 3140-8368, 8372

취약계층 대상 무료 스케일링

-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기초생활수급자
- 일시** 매주 수, 목 09:00~12:00
- 장소** 가좌보건지소 구강보건실
- 내용** 잇몸병 및 충치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 불소도포 실시
- 신청** 가좌보건지소 전화 및 방문 3140-8368, 8372
- 문의** 가좌보건지소

장애인 재활치료교실 운영

- 대상** 관내 만 19세 이상 뇌병변·지체장애인(1~6급)
- 일시** 연중(사전 예약 필수)
- 장소** 가좌보건지소 재활치료실
- 내용** ·물리치료, 작업치료, 방문 재활치료
·장애인 자조모임, 그룹 프로그램 운영
- 신청** 가좌보건지소 3140-8365, 8363

일자리 상담

2019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 대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30명(졸업생, 제적생, 방송통신대생, 사이버대생, 대학원생 제외)
- 근무** 2019. 1. 3.(목)~1. 31.(목)
- 조건** ·근무시간 : 주 5일, 09:00~15:00
·근무임금 : 46,750원/일
·근무내용 : 자료 정리, 민원 및 행사 안내, 사무 보조 등
- 신청** 12. 3.(월)~12. 13.(목) 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문의** 자치행정과 330-1074

2019년 상반기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대상**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대문구민으로 본인 및 가족 합산 재산 2억 원 이하
- 모집** 170명(청년/일반 156명, 고령자 14명)
- 근무** ·기간 : 2019. 1. 10.~ 6. 30.
·시간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원칙
·장소 : 구청, 동 주민센터 등 관내
·임금 : 시급 8,350원(주·월차, 식비 등 별도)
·분야 : 정보화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기타사업
- 신청** 11. 15.(목) ~ 11. 30.(금) 동 주민센터 신청 (신분증, 구직등록필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 구비)
- 문의** 일자리경제과 330-1696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단,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발달장애인에 한함)

내용 등록 장애인에게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일자리 제공

신청 12월중(구 홈페이지 공고 확인) 사회복지과 방문 접수

근무 2019. 1. 1.~12. 31.

근무 형태	근무시간	급여(월)	선발 인원
전일제	8시간/일, (주 40시간)	1,745,000원	35명
시간제	4시간/일, (주 20시간)	872,580원	20명
참여형	주 14시간	467,600원	40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5시간/일 (주 25시간)	1,093,850원	10명

※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문의 사회복지과 330-1266



사이버 상담

구청 공익 전문가(법률, 법무, 세무, 변리) 사이버 상담

☎ <http://www.sdm.go.kr/>

홈(로그인 후 이용) ▶ 종합민원 ▶ 전문가상담실

▶ 전문가 온라인 상담 ▶ 사이버 상담 신청(왼쪽 하단)

접수일 다음 날부터 5일(주말·공휴일 제외) 이내 답변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노무 사이버 상담

☎ <http://sdmworker.org> | ☎ 395-0720

12월 「전문가 상담」 일정

날짜	장소	시간	연락처
12. 3.(월)	구청(법률)	14:00~17:00	330-8594, 8719, 8747
	홍제3동(법률)	14:00~16:00	330-4345
	남가좌2동(법률)	10:00~12:00	330-8772
12. 5.(수)	북가좌1동(법률)	15:00~17:00	330-8562
	구청(건축설계)	10:00~17:00	330-1953
	구청(법무)	14:00~17:00	330-8594, 8719, 8747
12. 6.(목)	북가좌2동(법률)	14:00~16:00	330-4370
	구청(세무)	14:00~17:00	330-8594, 8719, 8747
12. 10.(월)	구청(법률)	14:00~17:00	330-8594, 8719, 8747
	연희동(법률)	13:00~15:00	330-8251
	홍제1동(법률)	14:00	330-4374
12. 11.(화)	홍은2동(법률)	13:00~15:00	330-8660
	충현동(법률)	13:00~14:00	330-8403
	연희동(법률)	16:00~18:00	330-8251
12. 12.(수)	구청(건축설계)	10:00~17:00	330-1953
	구청(법률)	14:00~17:00	330-8594, 8719, 8747
	천연동(법률)	10:00~12:00	330-8966
12. 17.(월)	홍제2동(법률)	16:00~18:00	330-8443
	남가좌1동(법률)	10:00~12:00	330-8872
	구청(건축설계)	10:00~17:00	330-1953
12. 19.(수)	구청(법무)	14:00~17:00	330-8594, 8719, 8747
	구청(세무)	14:00~17:00	330-8594, 8719, 8747
	북가좌2동(법률)	14:00~16:00	330-4370
12. 21.(금)	홍은1동(법률)	15:00~17:00	330-8460
	구청(법률)	14:00~17:00	330-8594, 8719, 8747
	12. 24.(월)	북아현동(법률)	14:00
12. 26.(수)	구청(건축설계)	10:00~17:00	330-1953
	12. 27.(목)	신촌동(법률)	16:00~18:00
12. 27.(목)	홍은2동(법률)	9:00~11:00	330-8660

※ 구청 : 공익전문가 / 동 주민센터 : 마을변호사 (사전 예약 필수)

※ 정기 상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통해 당당하고, 활기찬 노후를! 어르신 일자리 구한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글·사진 장은희 구민기자



김정진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좌)과 취업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조신희 취업지원센터장(우)

100세 시대, 인생 후반전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보건복지부 지정 무료 노인 취업 알선기관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취업지원센터이다. 취업지원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서대문구 노인지회는 1968년에 발족되었다. 1990년부터 현저동에 있다가 금년 5월 유진상가(통일로 484) 2층으로 이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진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과 조신희 취업지원센터장을 만나보았다.

김정진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에서는 어르신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관내 경로당을 관리합니다. 또한 노인 취업 상담·알선, 노인 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미용실 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에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조신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취업지원센터는 2004년부터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취업상담·알선 기관입니다. 취업 직종은 경비원, 청소원, 야간 숙직, 주차관리, 요양보호사, 택배, 주방보조 등 다양합니다. 경증 장애복지카드 소지자, 경비신입교육 이수자 및 자격증 소지자 등은 경비나 청소 직종에 특별우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두려

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2의 인생을 새롭게 맞이하는 마음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용기를 가지고 부딪히다 보면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 노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죠. 취업하신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다가 취업을 위해 찾아 온 권오경(북아현동)님을 만났다. “벼룩시장 홍보 내용을 보고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인테리어 6년, 가구 배달 10년 했는데 60살이 되다 보니 밤에 운전하는 것도 위험해서 학교 경비 일이 있으면 하고 싶어요”라고 취업 의지를 다지셨다. 꼭 취직이 되기를 응원해 본다.



취업 상담, 이렇게 받으세요!

- 상담신청** 이력서 또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
- 상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토요일, 공휴일 제외)
- 문의**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취업지원센터(유진상가 2층)
393-1268, 393-1269

안녕하세요 서대문마당 제작자가 인사드립니다



임지화 구민기자

지난 6월호 '친환경' 기획특집에 본인도 '친환경 도시농부학교에서 함께 농사지어요!'를 써 한 자리 차지했다. 그래봤자 글자 6백자도 안 되는 기사로 사진은 한 장 달랑 실렸다. 지면 안배상의 이유가 먼저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초보 기자로서 미숙한 기사와 사진 내용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솔직히 고백하면 사진 찍을 때 무조건 자연스러운 면만을 고집하여 연출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홍보과 담당자의 도움으로 구정기자로 소박한 데뷔를 할 수 있어서 기뻐다. 2019년에는 초보티를 벗고 구정기자로써 더욱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김진수 구민기자

(구민기자가) 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었는데 정말로 2018년 구정기자가 되었을 때는 '어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 괜히 한다고 했나? 망신이나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많이 걱정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했었는데,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니 참 시간이 빠른 것을 느낀다. 기사 기획안을 제안하려 우리 구와 세상의 일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생각하게 된 것이 나 자신에게는 발전이었고 우리구에 대해 애정이 더 가게 되었다. 내가 작성한 기사가 지면에 몇 번 실리게 되었으니 구청장님 이하 구정신문에 관여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간혹 가짜 기

자로 오해하시고 구청에 확인까지 하신 것을 알았을 때에는 헛웃음도 나왔지만, 그때 문이라도 2019년에는 구정기자로서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구정기자가 되기를, 한 해를 정리하며 바라본다.



유지희 구민기자

구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 기사를 잘 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보람도 느끼게 된다. 지난달 홍제2동 어르신 문화대학에서 인터뷰한 윤정순 분(92세)의 "배움엔 나이가 없다"는 말씀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2019년은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취재를 하고 싶다.

우정출연 홍보와 소식지 담당



장은희 구민기자

“장 기자! 우리 이번에 마을 축제하는 데 와서 취재 좀 해 주세요.” 부탁할 때 다른 일을 뒤로하고 취재한 적이 있다. 행사 취재는 행사시간 동안 지켜보고 직접 체험도 하면서 진솔한 느낌을 쓸 수가 있기 때문이다. 늘 취재를 하면서 ‘생동감 있는 기사를 써야지’라고 생각한다. 구민기자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때론 일이 정말 많다는 생각도 해본다. 기자 활동을 하기 전과 달리 봄·여름·가을·겨울 항상 지역을 살피고 마을을 다르게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을 위해서 사업 제안도 많이 하게 된다. “제안된 사업이 채택되면 돈 좀 주나요?”하고 물으면 “아니요. 10원도 안 줘요” 하면서 웃는다. 그렇다. 구민기자가 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 이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생활 불편 신고를 한다. 길을 가다가 펜스가 떨어져 있으면 민원 생활불편신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한다. 이렇다 보니 모든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고 그것을 내가 먼저 하게 된다. 2019년에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지역 소식을 위해서 구민기자는 달리고 있을 것이다.



민정규 구민기자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서대문구 도서관, 전통시장, 마을카페, 흥제천, 안산, 다음 달은 또 어디로 가면 가족하고 여행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더라. 지역 안에서 보물 찾기를 시작한 그들의 이야기들은 실시간으로 뜨는 연예인 소식이나 해외 토픽보다 피부로 느낄 만한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구민기자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몰라서 못 챙겨 받은 보험금마냥 안 놓치고 기다리는 지역 월보. 은행잎처럼 밟지 말라고 참견하는 애정도 아마 그 언젠가 독자 투고를 하게 된 때부터 가지게 된 것 같다.



김희경 구민기자

올 한해는 기자분들이 늘어나 새롭고 더욱 활기찬 해였던 것 같다.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민정 주무관

벌써 2018년도 달려 한 장만이 남았다. 소식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면 한 달, 한 계절,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게 느껴진다. 올해는 새로운 구민기자님들이 서대문마당을 위해 열심히 취재 활동해 주셔서 풍성한 이야기로 연인 소식지를 제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더욱 깊어가는 겨울, 모두의 마음만은 가장 따뜻하길 바란다.



안정현 주무관

어떤 소식을 만들어야 할까. 어떤 내용과 디자인이 좋을까. 매월 인쇄소에 파일을 넘기기 직전까지 생각하고, 구상하고, 수정하고를 반복해오다 보니 어느새 2018년 마지막 소식을 만들고 있었다. 소식지 제작의 기준은 언제나, 당연히 ‘구민’이었다. 서대문마당에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애정을 담아주신 기자님들께 감사하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어르신 생일 축하 행사



마음과 마음을 잇는 정성스러운 생신 축하

충현동 새마을부녀회는 10월 19일(금) 「마음과 마음을 잇는 정성스러운 어르신 생신 축하」 행사를 진행하였다. 10·11·12월에 생신을 맞이하는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20명을 초청하여 관내 음식점에서 푸짐한 상차림으로 어르신들을 대접했다. 날씨가 추워진 요즘 홀몸 어르신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고,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생신을 챙겨드린 뜻깊은 행사였다.

충현동 330-8674

아기자기한 벽화로 채워진 동네



주민들의 손으로, 폐가를 예쁜 예술 작품으로

천연동의 '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저소득계층 60여가구 주민들이 살고 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고통받는 거주민들은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주민센터에 요청해왔다. 이에 천연동 주민 80여 명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들은 직접 나무 판넬에 그림을 그려 파손된 창문과 대문을 막고 벽화를 그려 기분 좋은 동네가 되도록 노력했다.

천연동 330-4352



똑똑(Talk Talk), 우리동네



신촌동주민센터와 나눔가게 협약



신촌 대표맛집 '구월산, 이웃과 함께 나누니 맛이 두 배로!

지난 11월 6일(화), '구월산 왕족발'(대표 서영진)이 신촌동주민센터와 나눔가게 협약을 맺었다. 신촌동의 10번째 나눔가게가 된 '구월산'은 1983년부터 족발·순대를 판매해온 전통음식점으로, 매달 1회 저소득 어르신 10~15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15~20명의 청·장년 1인 가구에게 식사초대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촌동 330-8215

야간 취침등을 설치하고 있는 마봄협의체



낙상사고 없는 안전한 우리집 만들어요

연희동 마봄 협의체가 11월 5일(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50가구를 대상으로 '낙상사고 ZERO, 안전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을 펼쳤다. 연희동의 어르신 인구는 5,975명으로 서대문구에서 가장 많다. 어르신들이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욕실화, 야간 취침등, 미끄럼방지 매트, 미끄럼방지 양말, 야간 취침등 등 낙상 예방 물품을 전달했다.

연희동 330-8267

흥은2동 마복협의체가 개최한 바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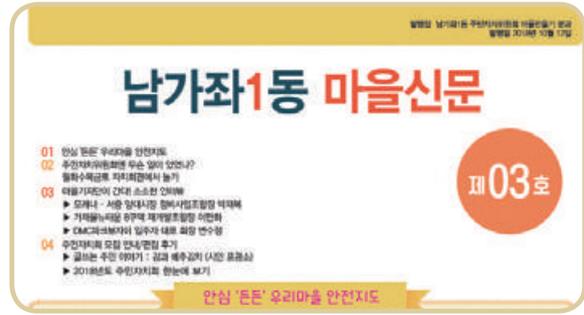


다가올 겨울, 누구나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흥은2동 마복협의체는 지난 11월 2일(금)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동절기 에너지빈곤층의 단전, 단가스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마련 바자회를 개최했다. 기부받은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복지기금을 마련했고, 마복협의체 위원들이 조리한 먹거리도 함께 판매했다. 판매수익금 전액은 관내 저소득 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흥은2동 330-4305

우리동네의 유일한 정보가 담긴 남가좌1동 마을신문



골목골목 소소한 이야기를 마을신문으로

남가좌1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마을만들기 분과위원회에서 이웃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남가좌1동 마을신문' 제3호를 10월 12일(금) 발간하였다. '남가좌1동 마을신문'에는 동네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보안등과 CCTV, 알람벨의 위치를 표시해 「안심 '든든' 우리마을 안전지도」를 완성하였다. 또한, 우리동네 재개발 추진 대표자 인터뷰와 시인 표광소님의 글도 담았다.

남가좌1동 330-8521



더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드는
우리 동네 소식을 한 데 모았습니다.



북가좌1동 나눔이웃 헬스리더



직접 만든 건강 밑반찬을 직접 건네드리다

지난 11월 6일(화) 북가좌1동 나눔이웃 헬스리더는 어르신들과 그 외 저소득 가구를 위해 건강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60가정에 방문 전달하였다. 반찬은 매콤한 마늘장아찌와 달달한 새우볶음, 그리고 막장이다. 나눔이웃들은 마늘장아찌에 마늘만 들어가면 심심하다며 본인이 직접 담근 고추장아찌를 가져와 섞는 등 자신의 것을 나누는 데 아낌이 없었다.

북가좌1동 330-8202

비상연락처가 새겨진 실리콘 팔찌 전달



어르신, 외출할 때 안전팔찌 꼭 착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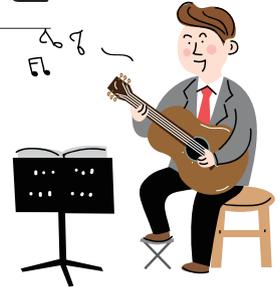
북가좌2동 주민센터와 동 마복협의체가 지난 11월 7일(수) 관내 어르신들에게 비상연락처가 각인된 안전팔찌를 지원했다. 어르신 중 건강상의 이유 및 장애 등의 이유로 비상 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50분을 위해 실리콘 팔찌를 제작해 직접 전달하였다. 팔찌를 받은 어르신은 "외출할 때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했는데 이제 안심이 된다" 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북가좌2동 330-8586

배우는 기쁨! 만드는 즐거움! 2019년 1분기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폐강 및 일시 등은 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프로그램 이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 신청 접수 일자 및 프로그램 별도 재료비 관련 등 자세한 문서는
반드시 해당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동 330-8192, 8439

프로그램	대상	정원	요일	시간	수강료 (분기)
아바드 어린이영어	7~초등(제)	15	월	16:00 ~ 16:50	66,000
생명과학 기초 B	초등	12	금	14:30 ~ 15:30	60,000
한국무용(중급)	어르신	17	수, 금	10:00 ~ 12:00	75,000
노래교실	성인	30	월	13:30 ~ 15:00	45,000
댄스스포츠	성인	20	수, 금	11:00 ~ 12:30	75,000

천연동 330-8949

프로그램	대상	정원	요일	시간	수강료 (분기)
필라테스	성인	20	월, 수	11:00 ~ 12:00	60,000
홈베이킹	성인	10	금	10:00 ~ 12:00	100,000
차밍헤어커트	성인	10	수	11:00 ~ 13:00	60,000
통기타	성인	20	목	19:00 ~ 21:00	60,000
걸어서 역사 속으로	초등3,4학년	10	화 or 목	15:30 ~ 16:20	무료

북아현동 330-8651, 8673

프로그램	대상	정원	요일	시간	수강료 (분기)
멧돌힐링명상요가	어르신	20	화, 목	09:30 ~ 10:30	30,000
스포츠댄스	주부	30	월, 수	10:00 ~ 12:00	60,000
경기민요	성인	25	목	10:30 ~ 14:30	60,000
기타	성인	15	월	10:00 ~ 12:00	60,000
헬스	성인	105	월~토	(월·금) 08:00-20:00 (토) 09:00-17:00	60,000

신촌동 330-8669

프로그램	대상	정원	요일	시간	수강료 (분기)
라인댄스	성인	20	월, 목	10:30 ~ 12:30	45,000
발리댄스	성인	20	월, 수	13:30 ~ 15:00	60,000
요가교실	성인	20	화, 목	13:00 ~ 14:00	45,000
통기타교실	성인	15	월	10:00 ~ 12:00	60,000
노래교실	성인	50	화	10:30 ~ 12:00	36,000

연희동 330-8256

프로그램	대상	정원	요일	시간	수강료 (분기)
실용손뜨개와바느질	성인	15	금	10:00 ~ 12:00	60,000
다이어트 복싱	성인	30	토	11:00 ~ 13:00	60,000
방송댄스	초중고	30	토	13:00 ~ 15:00	60,000
신나는 탁구	60세 이상	30	화, 목	14:30 ~ 17:30	90,000
중국어 초급	성인	20	월, 수	11:30 ~ 13:00	81,000

홍제1동 330-8404, 8285

프로그램	대상	정원	요일	시간	수강료 (분기)
음악출범기(A, B)	초등	22	화, 목	16:30 ~ 18:20	60,000
오후탁구	성인	30	월, 수	13:20 ~ 15:20	75,000
저녁요가(A, B, C)	성인	30	월, 수, 금	18:00 ~ 21:00	60,000
스포츠댄스	성인	30	월, 수	10:00 ~ 12:00	90,000
최애선의선바람 노래교실	어르신	30	금	13:40 ~ 15:10	36,000

※ 신청 기간 : 12. 17.(월) 09:00~정원 마감 시까지

📍 홍제2동 330-8453

프로그램	대상	정원	요일	시간	수강료 (분기)
생명과학 B반	초등	16	화	16:00~17:00	54,000 (재료비별도)
댄스스포츠(초급)	성인	30	월, 수	10:00~11:30	75,000
요가교실(저녁반)	주부	30	화, 목	18:30~20:00	45,000
국선도 A(단전호흡)	성인	30	월, 수, 금	07:50~08:50	45,000
풍물놀이설장구	성인	20	금	14:30~16:30	51,000

※ 자치회관 리모델링으로 인해 휴강/폐강/장소 이전될 수 있음

📍 홍제3동 330-8692, 4343

프로그램	대상	정원	요일	시간	수강료 (분기)
음악출범기	초등	20	토	13:00~15:00	75,000
하모니카반	성인	20	화	14:00~16:00	60,000
발리댄스	성인	20	월·금	10:30~12:00	60,000
주부노래교실	어르신	40	화	14:00~16:00	45,000
단전호흡 A반	어르신	20	월, 수, 금	08:30~09:30	60,000

※ 신청기간 : 2018.12.18.(화) ~ 정원 총원 시 / 운영 기간 : 2019.1.2.(수) ~ 2019.3.30.(일)

📍 홍은1동 330-8470

프로그램	대상	정원	요일	시간	수강료 (분기)
난타	남녀노소	20	목	15:00 ~ 16:30	45,000
가락장구교실	성인	20	금	10:30 ~ 12:30	45,000
힐링요가	성인	23	화, 목	18:30 ~ 20:00	60,000
노래교실	성인	20	금	14:30 ~ 16:30	45,000
통기타교실	성인	15	수	10:30 ~ 12:30	45,000

📍 홍은2동 330-8506, 8786

프로그램	대상	정원	요일	시간	수강료 (분기)
우크렐레	성인	10	화	10:00 ~ 11:00	60,000
난타	성인	10	월	13:00 ~ 14:00	60,000
한글서예교실	어르신	15	수	10:00 ~ 12:00	51,000
요가교실(저녁 1)	성인	40	월, 수	18:15 ~ 19:15	51,000
장구교실	어르신	20	화	16:00 ~ 18:00	51,000

📍 남가좌1동 330-8872,4307

프로그램	대상	정원	요일	시간	수강료 (분기)
붓글씨 매력	성인	20	화, 목	10:00 ~ 12:00	54,000
줌바댄스	성인	20	월, 목	19:00 ~ 20:30	66,000
손글씨 캘리&POP	성인	15	수	10:00 ~ 12:00	54,000
원목교구놀이	6~7세	8	수	16:00 ~ 16:50	54,000
우리 동네 이야기 할머니	6~7세	10	토	10:00 ~ 10:50	54,000

📍 남가좌2동 330-8399

프로그램	대상	정원	요일	시간	수강료 (분기)
단요가	어르신	20	화, 금	09:30 ~ 11:00	60,000
탁구교실(야간)	일반주민	20	화, 목	18:30 ~ 20:30	75,000
아침요가	일반주민	20	화, 목	10:10 ~ 11:40	54,000
노래교실	어르신	40	목	10:00 ~ 12:00	39,000
경기민요	일반주민	20	화	10:00 ~ 12:00	45,000

📍 북가좌1동 330-8560

프로그램	대상	정원	요일	시간	수강료 (분기)
웰빙댄스	어르신	25	월	09:00 ~ 11:00	30,000
플룻	학생, 성인	15	금	16:00 ~ 18:00	40,000
통기타	성인	20	수	10:00 ~ 12:00	50,000
저녁요가	성인	30	월, 수, 금	18:00 ~ 19:30	66,000
초등발레	7세~초등	20	화, 수	15:00 ~ 16:00	60,000

📍 북가좌2동 330-4368, 8652

프로그램	대상	정원	요일	시간	수강료 (분기)
단전호흡	어르신	20	월~금	06:00 ~ 07:00	72,000
요가(월,수,금)	어르신	30	월, 수, 금	10:30 ~ 12:00	75,000
진도북춤	어르신	15	금	10:30 ~ 12:00	54,000
어르신 문해교실	만60세 이상 어르신	15	월	10:00 ~ 12:00	무료
한자급수반	초등	15	금	14:00 ~ 16:00	45,000 (교재비 별도)



독자투고

TV끄고 온가족 수다쟁이 만들기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을 한마디 툇 던지고는 방으로 들어간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먹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광고나 프로그램에 눈길을 주면서 밥을 먹는다. 식사 시간 내 내 오가는 대화는 거의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가족 간의 대화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녁밥을 먹다가 아이들에게 ‘식사에만 집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아이는 “그럼, 엄마 아빠는 왜 맨날 텔레비만 봐요?”

결국 우리 가족은 ‘신사협정’을 맺었다. 식사 중 가족 모두가 식사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식사 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TV 시청 시간을 확 줄이고 나니 저녁 먹는 시간이 처음엔 무척 어색했다. 떨그럭, 떨그럭... 식기에 숟가락 부딪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러나 처음의 어색함이 지나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우린 역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너, 이번에 중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고 싶은 데 없니?”
“엄마가 데려다 주시게요? 저는 캐나다에 가보고 싶어요... 헤헤” 금세 농담이 나온다. “그래? 거기 가려면 영어 공부 좀 해야겠네. 프리토킹할 수준 되면 엄마에게 말해. 당장 데려갈게.”

작은 시도이지만, 벌써 시작했어야 할 식사 시간 가족 간의 대화. 우리 가족은 벌써 수다쟁이들이 되어가고 있다.

김옥임(천연동)

이웃의 정이 살아있는 서대문구민들



저녁에 이웃집 기훈 엄마와 고등학생 우리 딸아이가 함께 들어왔다. 이유를 물었더니, 길거리에서 어떤 아저씨가 길바닥에 버리려는 담배꽂초가 마침 그 옆을 지나던 우리 아이 발등에 떨어졌고, 아이가 항의하자 남자가 우리 딸애에게 손찌검을 할 뻔 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침 길을 지나던 기훈 엄마가 그 장면을 목격해 남자의 손찌검을 막고 아이를 데려 왔다는 것이다. 기훈 엄마가 우리 아이의 봉변을 막은 상황이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일인데 아이를 위기에서 구해 함께 데려온 기훈 엄마에게 너무 고맙다.

도시에 살면서 이웃집 아이에게 이렇게 신경 써주는 고마운 이웃을 두고 있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될까. 도둑이 들어도, 부부 싸움을 해도, 불이 나도, 지진이 나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일처럼 지내는 게 요즘의 이웃들이다. 그러니 서로 간에 시선조차 주기를 꺼린다. 우스갯소리지만 오죽하면 집에 강도가 들면 “강도야!”라고 소리치지 말고 “불이야!”라고 소리쳐야 한다는 말이 있을까. 우리들의 아버지 때만 해도 눈이 내리면 먼저 일어난 사람이 골목길의 눈을 말끔하게 치웠다. 이웃집에 김치를 들고 가면 김치에 굴까지 덩으로 얹어져 오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박한 정이다. 살아가면서 이웃 간에 그 정도 정은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서대문구민들도 이웃 간의 정을 나누어 보길 고대해 본다.

양창숙(연희동)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독자투고] 주제 제한 없음(일상이야기, 미담사례, 시, 사진 등) / 분량 A4 한 장 이내

보내실 곳 이메일(furynoa@sdm.go.kr) 또는 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 > 서대문미디어 > 서대문마당 > 독자참여)

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홍보과 **기재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문의** 홍보과 330-8193

※ 소정의 원고료는 독자투고(채택된 글에 한함)에 한해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100권 책 읽기, 12월의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원하는 도서를 검색해보세요!

어린이가 읽으면 좋아요!

제목 : 나랑 밥 먹을 사람

저자 : 신순재

출판사 : 책읽는곰

추천자 : 마을독서 강사, 도서관데이 자원 활동가 박삼심

추천 사유

단이는 학교에서 밥 먹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밥을 빨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이 가득 있는데 이상하게 맛이 없고 속도도 느려서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놀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날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다급한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나랑 밥 먹을 사람”을 외쳐 찾게 되고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고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성인이 읽으면 좋아요!

제목 :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저자 : 박옥수

출판사 : 온마인드

추천자 : 서대문구립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 사서 오미연

추천 사유

저자가 독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생각의 정체와 정리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룬 이 책은, 저자가 실제로 만나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마음의 세계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한 마인드북입니다. 최근 심인성 정신질환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불행으로 이끌리는 마음의 경로를 규명해, 많은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가좌2동 나눔가게 씨월안경원



남가좌2동에 위치한 씨월안경원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 공동생활가정 입소 청소년 등 안경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소 아동·청소년을 위한 나눔 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표님이 남가좌2동과 나눔가게 협약을 맺고 나눔 활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존 1인 8만 원 이내로 지원하던 것을 현재는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이 좋아하는 디자인과 시력에 적합한 렌즈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도를 10만 원까지 늘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경을 지원받을 아동은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함께 언제든지 안경원을 방문·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력 교정뿐 아니라 유행에 민감한 아이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섬세한 나눔이 우리 마을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247회 임시회 폐회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은 10월 23일(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 24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45회 보류 안건인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를 원안 가결했다. 이외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를 원안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자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종석 의원

서대문구의회의 이종석·유경선 의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서대문구의회의 이종석·유경선 의원이 9월 18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3일 제 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에 “분말소화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의한 두 의원은 “2017년 1월 26일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에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폐소화기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유경선 의원

박경희 의원, TV서울 개국 5주년 기념식 의정대상 수상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회운영위원장은 10월 16일 국회의 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TV서울 개국 5주년 기념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TV서울은 그간의 공약사항 이행과 의정활동 등이 남달리 우수한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박경희 의원의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박경희 의회운영 위원장은 “의회의 운영을 책임 맡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집행부와 의회 상생을 위한 소통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화합하는 참다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며 뜻을 전했다.



이경선·최원석 의원, 2018 대한민국최고국민대상 수상

서울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과 최원석 의원이 10월 22일 '2018 대한민국 최고 국민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최고 국민대상은 (재)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 주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공헌한 국내 오피니언 리더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된 두 의원은 “부족한 저에게 이런 막중한 상을 주셔서 너무나 기쁘면서도 또한 어깨가 무거움을 느낀다. 구민을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경선 의원



최원석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장 방문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유경선)는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7일(목) 송파구 장지동 692-2번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에 소재한 '송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현장 방문했다. '송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음식물쓰레기에서 양질의 단미사료를 생산하여 애견 및 양어사료로 판매하고 있으며,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재사용해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다. 참석한 의원들은 “음식물 외 폐기물이 유입될 경우 처리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올바른 분리배출을 습관화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음식물쓰레기가 친환경 건조사료로 사용하거나 친환경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자, 뉴스레터 서비스 구독 이벤트

서대문구 주요 최신정보, 모르면 나만 손해
 무료로 구독하고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구 최신 교육·행사·축제 등을
 문자 발송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블로그 콘텐츠 중 주요사항을 선정해
 주 1회(화요일) 이메일 발송



구알림서비스 구독 이벤트

문자, 뉴스레터 서비스 구독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참여방법**
- ① 구 홈페이지-구청소식-구청소식 구독신청
 - ② 문자, 뉴스레터 모두 신청
 - ③ 신청인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furynoa@sdm.go.kr) 전송

추첨내용 추첨을 통해 40분께 문화상품권(5,000원) 증정

참여기간 11. 28.(수)~12. 20.(목)

당첨발표 2019. 1. 2.(수) 구 홈페이지 공지(예정)

문의 홍보과 330-8193

서대문구청 SNS, 블로그 검색창에 '서대문구청'을 검색하세요.



티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언제 어디서나
 소식을 볼 수 있는

서대문마당 모바일앱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